

## “촘스키혁명”의 실상

문경환  
(연세대학교)

### 1

미국에서 70년대에 발간된 현대 철학연구총서(Modern Studies in Philosophy) 중 한 권은 촘스키 평전이라 할 만한 내용들로 할애되고 있는데, 편집자인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의 하먼(Gilbert Harman) 교수는 그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현대철학연구총서 중 한 권이 노엄 촘스키를 위해 할애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왜냐하면 현대철학에 대해 촘스키의 언어이론보다 더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현대언어학연구총서나 현대심리학연구총서나 현대인류학연구총서 등에서도 그러한 책 한권이 나올 만하다. 이 분야들에 있어서도 촘스키 이론의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촘스키는 우리로 하여금 언어와 마음에 관련된 공통의 주제가 전공영역의 경계선을 가로질러 존재함을 보게 했다.

촘스키의 언어이론이 언어학계뿐 아니라 철학이나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관심-내지는 반발-을 유발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언어학의 궁극적 목적을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로부터 ‘언어 연구를 통한 인간 연구’로 돌려놓았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언어이론은 단지 언어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도구여서는 안 되고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실체의 표상이어야 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언어습득 원리에 대한 설명으

로 성립되어야 한다. 이론범주 상 도구론(道具論)에서 실재론(實在論)에로의 방향전환인 것이다. 촘스키가 경험론적이고 행동주의적이며 귀납주의적이던 종전의 언어이론으로부터 합리론적이고 심성주의적이며 연역주의적인 언어이론에로의 발상전환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오로지 직접적 관찰이 가능한 언어현상만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분류학(taxonomy)에 지나지 않음을 그는 지적하였으며, 또한 이론이 반드시 관찰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관찰이 이론에 의해 유도될 수도 있음을 역설하면서 추상적 개념에 대한 문호를 활짝 개방하였다. 그는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을 표방하던 종전의 심리학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심리학을 행동과학과 동격시키는 것은 마치 물리학을 미터기 계량학과 동일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미터기 계량이 특정 이론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듯이, 인간의 못 행동 유형이 인간 심리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심리학의 핵심적 연구대상일 수는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진정한 인간연구는 표층적으로 그리고 가변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현상 밑에 자리잡고 있는 심층적 심리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언어학은 그러한 탐구의 구체적 방법 중 하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촘스키의 생각이었다. 이를 계기로 언어학이 인접 분야에 영향을 끼치면서 학제적 연구의 길을 터놓은 것이다.

언어학 분야 내부로 눈을 돌리더라도 촘스키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 오늘날 이론언어학자들은 자신이 어떤 학파에 속하든 적어도 어느 정도 혹은 어느 측면에서는 촘스키의 견해와 비교하며 자기네의 입장을 밝히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언어학도라면 촘스키 이론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그의 언어이론은 오늘날 언어학 분야의 “주류파”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가 유도한 일련의 지적 사건들에 대해 “촘스키혁명”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기도 한다. 심지어 촘스키식 언어학에 대해 철저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이 명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촘스키 학파의 출현을 “언어학의 발전 상 매우 불행한 일”로 보는 샘

슨(Geoffrey Sampson)도 “언어학에서 촘스키가 혁명을 일으켰다는 정치적 은유는 적절한 것”이라 말한 바 있다(1980: 130, 163).

‘혁명’이라는 용어가 학문계에 적용되어 활발하게 운위되기 시작한 것은 쿤(Thomas S. Kuhn)의 기념비적인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를 계기로 한 것이다.<sup>1)</sup> 촘스키 언어이론의 출현을 언급하는 논평자들은 (이 분과에 속하든 않든) 대부분 언어학사에 그가 가져온 충격파를 쿤식 혁명(Kuhnian revolution)에 비유한다. 화행론 연구로 유명한 언어철학자 써얼(John Searle)의 다음과 같은 말도 그 하나의 예다(1974: 2f).

그[촘스키]의 혁명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묘사된 일반적 패턴에 거의 그대로 부합된다. 언어학의 기존 모형 즉 “패러다임”이 주로 촘스키의 연구작업에 의해 반박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반증들과 해결불가능의 자료들이 점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증들이 결국은 촘스키로 하여금 아예 기존 모델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게끔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란 구조주의언어학을 이르는 것으로, 촘스키의 출현으로 구조주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 
- 1) 과학이 누적적 지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혁명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쿤의 견해다. 자연과학에도 여러 학파들이 난립하여 각기 경쟁하는 미성숙의 시기, 즉 ‘전(前)패러다임’(pre-paradigm) 단계가 있다. 그러다가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의 학파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전(前)과학의 단계는 종결되고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 시작된다. 이제 과학자들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진 선배 과학자들의 문제해결방식을 모델로 하여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 그러다가 다시 세계관과 가치관, 신념체계, 생활양식 등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패러다임이 걸잡을 수 없게 무너져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과학혁명의 예로써,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서의 변혁, 뉴턴의 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의 변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패러다임들 사이의 선택 과정이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통한 합리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이나 설득 작업 등에 의한 다수의 지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학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적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정말로 적절한 것인가? 다시말해 쿤이 말하는 혁명 내지 패러다임의 개념이 촘스키 언어이론의 출현에 대해, 아니면 더 크게는 언어학사에 대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만일에 촘스키혁명이 ‘쿤식의 혁명’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의 혁명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 촘스키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언어학이라는 학문분야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앞서 말한 샘슨의 견해를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 2

위의 각주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바이지만, 쿤에 의하면 과학 혁명은 전형적으로 (i) 기존 과학의 핵심적 가설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ii) 한 과학자의 독창적이고도 탁월한 이론이 생겨나 (iii) 이 새로운 이론에 대해 해당 분야의 모든 성원이 합일치한 의견을 보이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며, 따라서 패러다임은 적어도 방금 말한 (ii)와 (iii)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우선 (i)의 ‘위기적 배경’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 촘스키가 변형생성문법을 주창할 당시 블룸필드식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전혀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 분석에 관련된 기본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곧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ii)의 ‘독창성 기준’에 관해 말하자면, 촘스키는 자신의 핵심 개념인 ‘언어기능’ 및 ‘보편문법’이 로저 베이컨의 보편론적 언어관, 데카르트 내지 보제(Nicolas Beauzée)의 이성론적 일반문법론, ‘언어는 마음의 창’이라는 라이프니츠의 언어관, 훔볼트의 내적 언어구조(*innere Sprachbau*) 등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리고 자신의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이 구조주의언어학자이자 스승인 해리스(Zellig Harris)로부터 물려 받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 하면,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수행(*performance*)의 구분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소쉬르의 랑그와 빠롤의 구분과 근본 개념을 같이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마디로 변형 생성문법 이론은 전통적 언어관과 구조주의 문법의 두 가지 지적 전통의 소

산 이라는 것이 촘스키 자신의 표현이다(1986: 29).

그렇다면 쿤식 패러다임을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라 할 수 있는 (iii)의 ‘보편적 합의’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에 관련해서는 우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 중 촘스키식 문법론의 신봉자는 극히 적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주요 대학들—예컨대 시카고, 예일, 오레곤, 조지타운, 콜롬비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하버드, 하와이, SUNY버팔로, UC버클리, 뉴멕시코, 라이스, 미시건, 등등—의 언어학과(科)는 생성문법론과 무관한 성향을 띠고 있으며, 생성문법론을 지향하는 대학들—미네소타, 브라운, 워싱턴, 위스콘신, 코넬, UCLA, USC, CUNY, 등등—의 언어학과에서도 생성문법론에 대해 적대적인 교수들이 얼마든지 발견된다(Newmeyer 1986: 12). 또한 미국의 언어학회인 LSA도 반(反)생성문법론적 성향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생성문법론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 때문인지 많은 쿨지의 ‘생성문법가’들—Michael Brame, Joan Bresnan, Joseph Emonds, Robert Fiengo, Osvaldo Jaeggli, Lauri Karttunen, Edward Keenan, Charles Kisseberth, Edward Klima, Mark Liberman, Alan Prince, Paul Postal, Edwin Williams, 등등—은 아예 LSA에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인용된 책: 13). 사실 방금 언급된 언어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촘스키의 문하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점에 관해서 촘스키 스스로도 최근의 한 대답에서 “돌이켜 보건대 내가 하고 있는 종류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1982: 43).

이제 우리의 결론은 자명하다. 촘스키혁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쿤식 혁명’은 아닌 것이다. 쾨르너(Konrad Koerner)가 언어학사를 기술하면서 촘스키의 업적을 쿤식 패러다임에 비견하던 입장을 나중에 수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1976, 1983).

사실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의 개념은 자연과학사 내에서도 분분한 논쟁의 대상이다. 우선 ‘위기적 배경’과 ‘보편적 합의’의 기준이 그러하다. 가령 우리는 19세기 생물학에서의 ‘다윈혁명’을 운운하지만,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의

학설에 동조하는 생물학자는 극소수였다. 그의 진화론이 창조론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생겨난 것도 아니다. 우리는 18세기 초 물리학에서의 ‘뉴턴혁명’을 운운하지만, 당시의 기존 물리학 이론에 위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뉴턴의 이론이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 및 철학자들은 그의 학설을 믿지 않는 편이었고, 심지어 어느 비판자는 “이 미치광이 수학자는 평생을 걸려도 단 20명의 지지자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할 정도였다(토마스 1984: 68). 이 예언은 적중하여, 뉴턴이 그의 『수학원리』를 출판한 후 40년을 더 사는 동안 그의 지지자는 12명도 채 못 되었다 한다. 16세기 초 천문학계에서 일어났다는 “코페르니쿠스혁명”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당시의 학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학설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코페르니쿠스가 “미친 성직자”로 치부되고 있을 정도였다(같은 책: 35). 실상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학설을 책으로 펴내기를 꺼리고 있었는데, 이는 (종교재판의 서술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신중성 때문이었다 한다. 아직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자신의 학설이 미처 정착할 여유도 갖기 전에 비판자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기가 두려워서였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가 70세가 거의 다 된 즈음에 그의 친구인 한 주교에 의해 그의 불멸의 작품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출판되었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서문을 쓰면서 “이 책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장난기 있는 환상을 제시하기 위해 씌어진 것이다”라고 했으며, 이미 죽음의 문턱에서 있던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야비한 장난질에 항의할 형편이 못 되었다 한다(같은 책: 38).

쿤의 세 가지 기준 중 자연과학사 상의 사실(史實)에 가까운 것은 아마도 ‘독창성 기준’뿐일 것이다. 그러나 미상불 사실에 ‘가까울’ 뿐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지동설을 발표하면서 이 설은 이미 피타고라스학파에 의해 제창되었던 것임을 밝힌 바 있고,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과 매우 흡사한 이론이 같은 시기에 월러스(Afred Russel Wallace)에 의해 정립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sup>2)</sup> 결국 쿤이 말하는 혁명 및 패러다임의 개념은 자연과학 자체를 두고

보더라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정상과학(normal science)의 개념을 들여다보자. 정상과학에서의 작업은 그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패러다임 내에 이미 답이 이미 주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퍼즐게임과도 같은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며, 바로 그 보수성 때문에 연구의 능률성을 얻게 된다.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학자들은 패러다임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목하 문제가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변칙적이거나 지엽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아니면 이론자체보다도 이론의 응용방법에 잘못이 있었거나 과학자 자신에게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돌려 버린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정상과학’이라면,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반증’의 사례로 성립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포퍼(Karl Popper)로부터 신랄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리라는 것이 혁명과 같은 ‘비합리적’ 과정에 의해 한꺼번에 얻어진다는 주장을 포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진리는 이론과 실험의 싸움터에서 부단하게 벌어지는 추측(conjecture)과 반박(refutation)의 과정 속에서 오류로 판명되는—즉 ‘반증’되는—이론들이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는 가운데 접근되는 것이 포퍼의 견해이며(1968, 1978), 이것이 그의 ‘반증론’(falsificationism 혹은 fallibilism)의 골자다.<sup>3)</sup> 쿤이 자신의 학설을 해명·수정한 후속편(1977)을 쓴 것은 이러한 비판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sup>4)</sup>

2) 윌러스가 자신의 자연도태설에 관한 글을 다윈에게 보냈을 때 다윈은 매우 감탄했으며, 결국 두 사람의 글이 린네학회(Linnaean Society of London) 학술지에 공동연구의 형태로 발표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3) Lakatos & Musgrave(1970)도 넓은 의미에서 포퍼와 비슷한 이유로 쿤의 이론을 반박한다. 다만 과학 이론의 핵심적 가설이 반증에 의해 계속 무너지면 결국 성숙된 과학(mature science)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포퍼의 반증론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유망한 핵심 가설이 반례에 부딪칠 때에는 일련의 보조가설을 통한 ‘보호대’(protective belt)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쿤의 이론에 찬사와 더불어 비판이 쏟아졌고, 또한 쿤 스스로도 자신의 이론에 논리적 결함 내지 비약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학문계에 끼친 그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우선 그는 과학의 실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일

그러나 쿤의 기준들이 자연과학사의 실제 내용에 일치하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현 논의에 관한 한 부차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은 촘스키학과 언어이론이 쿤식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촘스키혁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쿤식 혁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의 혁명일 수 있는가? 이에 관련하여 Laudan(1977)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생각해 보자(Newmeyer 1986으로부터 재인용).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연구의 전통이 성립되어 충분한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이 발아단계의 이 연구 전통과 관계정립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이다. 뉴턴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당시의 거의 모든 물리학자들이 그의 세계관에 반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것은 뉴턴 체계에 대한 ‘반박’의 논지를 세우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턴이 자연현상에 대해 개발한 접근법이 무시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와 흡사하게, 19세기의 생물학자들은, 자신이 열렬하게 다윈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확실한 반(反)진화론자이건 간에, 다윈주의의 공과(功過)를 논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 생겨나 관련 분야의 연구가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랄한 비판까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반응을 유발

---

깨워주었다. 이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학 역시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고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포괄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해 차지하던 위상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자기 학문의 ‘과학화’를 표방하던 사람들에게 쿤의 이론은 자연과학도 사회과학의 일부임을 인식시켰으니, 이는 사회과학을 자연과학화하려는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사회과학’이니 ‘인문과학’이니 하며 ‘과학’의 문패를 달고 싶어 하지만 말이다.) 키트(Russell Keat)나 어리(John Urry)와 같은 사회학자는 쿤의 이론이 자연과학사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다른 분야에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Keat & Urry 1975), 쿤 자신도 본래 자연과학을 다른 학문과 구별짓는 요소로서 ‘패러다임’을 논한 것이지만, 그의 이론은 여전히 자연과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은 ‘진리 추구’를 운운하면서도 실은 모종의 패러다임에 갇혀 퍼즐게임을 하고 있을 뿐인지 모른다.



하는 경우, 그 새로운 접근법은 ‘혁명적’이라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뉴튼혁명’, ‘다윈혁명’ 등을 운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쿤의 입장과 포퍼의 입장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의에서라면 ‘촘스키혁명’이라는 표현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sup>5)</sup> 촘스키의 언어이론이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대상이라는 뜻에서 말이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새로운 언어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이론이 촘스키의 이론보다 어떤 면에서 더 우수한가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책 전체가 촘스키 이론에 대한 비판만을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세계적으로 허다하며(Botha 1989, Weydt 1976, Hagège 1976), 이는 비단 언어학자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sup>6)</sup> 바로 이런 점에서 촘스키 언어이론은 ‘주류파’라는 호칭이 붙을 만하다. 촘스키식 언어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촘스키 자신의 표현대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그 같은 비판들의 행렬이야말로 목하 언어학이 무시하지 못할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3

이상의 논의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촘스키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혁명이었는가? 그의 언어이론이 구조주의 언어학을 전복시켰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못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촘스키가 반기를 든 것은 ‘블룸필드식 구조주의’에 대한 것이었지 ‘미국식 구조주의’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구조주의’ 일반에 대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사실 ‘구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일목요연한 정의를 매우 힘들게 한다. 넓

5) 그리고 목하 정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신분법가(neogrammarian)혁명’, ‘소쉬르혁명’, ‘블룸필드혁명’ 등등도 운위할 수 있을 것이다.

6) 문학비평가 Ian Robinson이 쓴 *The New Grammarian's Funeral: A Critic of Noam Chomsky's Linguistics*가 그 하나의 예이다.

은 의미에서 구조주의란 사물 내지 현상에 특정의 구조, 즉 자체 내의 체계가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넓은 의미만큼이나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진다. 역사에 있어서 장구하고, 학문분야에 따라 내용상의 변용을 겪고 있으며, 또한 같은 명명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구조주의다. 구조주의의 기본 개념은 언어학 뿐 아니라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기호학, 문학비평 등의 인문사회 분야, 그리고 생물학, 물리학, 수학을 위시한 자연과학 분야에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구조주의의 개념이 확실히 정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후기 구조주의’ 내지 ‘탈구조주의’가 운위되고 있는 상황이다.<sup>7)</sup>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Piaget(1970)의 정의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자.<sup>8)</sup> 그는 우선 ‘구조’를 전체성(wholeness), 역동성(dynamicity) 및 자율통제(self-regulation)의 세 가지 개념에 입각해 정의한다.<sup>9)</sup> 부분은 전체에 비추어서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전체성’의 개념이다. 즉 각개의 구성요소는 특정의 법칙들에 따라 전체를 이루며 따라서 전체로서의 구조는 이들 법칙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는 체계라는 뜻이다. ‘역동성’이란, 구조가 구성요소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고 특정의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형하는 체계라는 것을 이르기 위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이 외적 요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법칙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7) 구조주의에 대한 역사적 조망을 요령있게 한 것으로 도스(François Dosse)의 저서(1998)를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로 구분하여 불리는 두 사조가 실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구조주의를 주로 후기 구조주의 사조에 연관시켜 논하고 있어 우리의 논제에 연결 시키기가 힘들다.

8)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논의는 Hymes & Fought(1981)에 발견되지만 이는 미국식 구조주의 언어학을 다룬 것이므로, 여기서는 구조주의의 기본 개념을 다루는 뼈아제의 설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9) Piaget는 원래 ‘역동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촘스키 문법에서의 변형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구조주의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 ‘자율통제’의 개념이다.<sup>10)</sup> 그러므로 구조주의는 전체를 전체구성 이전의 요소로 환원시키려는 원자론(atomism)적 경향에 반대하는 성향을 지닌다.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요소 간의 관계란 직접 관찰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조 뿐 아니라 추상적인 체계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자연히 구조주의는 어떤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관찰가능한 실체 뿐 아니라 그 밑으로 흐르는 추상적 실체도 중시한다.

언어학의 견지에서 구조주의란 대략 언어가 그 자체의 문법구조를 가지며 문법은 자율적인 원칙으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이 소쉬르의 견해였던 바, 그는 언어를 “그 자체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tout se tient*)” 통합되고 자율적 체계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구조주의라는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유행하게 된 것도 실상 직접 간접으로 그의 언어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이에 흡사한 견해는 앞서 언급한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내적 언어구조’(innere Sprachbau),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소쉬르가 반기를 든)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언어관에도 이미 함축되어 있다. 실로 기원전 500년 경 인도의 파니니(Pāṇini)가 행한 산스크리트어 문법의 연구를 구조주의언어학의 시조로 보는 학자도 있다(Piaget 1970). 구조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structura*에서 유래한 것으로, 후자는 ‘조립한다/배열한다/건축한다’는 뜻의 동사 *stuerere* – 좀더 정확히는 이 동사의 완료형인 *structus* – 의 파생어이다. 즉 부분이 전체를 이루며 조합된 결과물 내지 그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 그리고 이들의 유기적 배열 및 집합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넓은 뜻에서 모두 구조주

10) 미국의 블룸필드식 구조주의 언어이론은 문법의 각 영역, 이를테면 형태론과 통사론, 통사론과 음운론, 등등의 상호작용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금 말한 ‘역동성’의 개념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11) 소쉬르 자신은 ‘구조’라는 말보다는 ‘체계’라는 말을 썼으며, ‘구조’ 내지 ‘구조주의’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와 의견을 같이하던 프라그학과 언어학자 야콥슨과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부터이다(Hymes & Fought 1981).

의 언어이론인 셈이다.

방금 보았듯이 언어의 내부에는 자율적 체계로 구성된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 요소들 사이에는 상호작용 관계가 있다는 것이 (소쉬르식의) 구조주의를 이루는 근본 개념인데, 이렇게 보면 이 근본 개념에 관한 한 촘스키 또한 철저한 구조주의자이다. 그가 주장하는 문법의 자율성 명제(autonomy thesis) 내지 단위조합론(modularism)의 내용이야 말로 구조주의의 핵심 개념 바로 그것이다. 그의 언어이론이 “변형생성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처음부터 ‘구조’라는 개념이었다. 가령 그가 의미론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상으로 한 것은 ‘구조적 의미’(structural meaning)였지 일반적 개념의 의미가 아니다. 피아제가 촘스키 언어학을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회학 분야에서 널리 읽히던 Keat & Urry(1975)에도 같은 식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들이 ‘언어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분류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언어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견해도 인용될 수 있다. “촘스키의 Syntactic Structures와 함께 구조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Bierwisch 1971: 44)라든가, “초기 변형문법은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의 당연한 결과다”(Lakoff 1971: 267f)라든가 하는 견해 말이다. 물론 이들은 촘스키의 초기이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만, 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중시하는 그의 기본 방침에는 이후의 이론 모형에서도 변함이 없으며, 그런 면에서 촘스키 언어학이 구조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촘스키혁명이라는 말은 (소쉬르 구조주의를 떠나) ‘미국식 구조주의’에 대해서도 온당치 않다는 점을 Hymes & Fought(1981)는 지적한 바 있다. 촘스키 이전에도 사피어(Edward Sapir)와 같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촘스키와 흡사한 언어관을 이미 펼치고 있었는데, 블룸필드 학파에 의해 압도되고 있는 당시의 미국 언어학계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 넓게는, 쿤식 혁명의 개념을 언어학의 역사에 적용시키는 자체가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한 학자도 있다(Percival 1976).

그러므로 구조주의 언어학을 ‘촘스키혁명에 의해 타도된 것’ 정도로 보는

것은 구조주의의 근본 개념에 대한 인식부족의 소치일 뿐 아니라, 미국식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이기도 하다. 구조주의는 특정의 학설이나 이론이 아니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고 방법이고, 촘스키는 반(反)블룸필드적(anti-Bloomfieldian)이었을 뿐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sup>12)</sup> 한마디로 말해, 촘스키 언어학도 결국은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t) 언어학’이라 할 만한 것이다.

4

‘촘스키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또 하나의 사항은, 그러한 표현이 언어학이라는 학문분야에 대해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점이다. 앞에 말했듯이 샘슨(Geoffrey Sampson)은 이 표현을 받아들이면서도 촘스키 학파의 성립이 언어학의 발전을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목하의 언어학과에 대해 ‘혁명’을 운위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혁명을 운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언어관이 과거 사람들의 통찰력과 어떻게 맥을 잇고 있는가, 그의 언어이론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된 당대의 학문적 사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촘스키혁명이라는 표현, 아니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위험하다. 정치·사회적 어의를 띤 이 용어는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모종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고 심하게는 (각주14에서 후술할 라브와지에의 경우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용어가 특정 학술 분야에 연계되면서 과거의 이론을 타도의 대상으로 평가하거나 이제는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패러다임’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이론이나

12) Hymes & Fought(인용된 책: 190)은 심지어 촘스키가 “이전의 (언어연구) 작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오독”(anachronistic misreading of preceding work)을 했다고까지 말한다.

학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를 흡수하지 않으면 ‘혁명’의 행렬에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론 모형의 변화를 알리는 어떤 동향이 감지될 때마다 이를 초특급으로 입수하여 소개하거나 자기의 이론에 재빨리 반영하는 것이 학자 본연의 자세라고 믿어버리는 습관도 생겨나고, 하나의 이론분파에 불박여 있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은 곧 학문의 길을 포기한 유리방황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촘스키 언어이론의 대두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두 가지의 사항을 언급해 두고 싶다. 하나는 그 당시가 논리실증주의(logico-positivism) 과학철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세계관(Weltanschauung) 과학철학이 한창 조성되던 때였다는 점이다.<sup>13)</sup> 촘스키가 블룸필드식 구조주의 언어이론이 표방하는 가시적 객관성과 귀납적 공식화의 방법론에 대해 펼치던 논박의 내용은 세계관 과학철학자들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을 향해 제기하던 비판의 내용 바로 그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 입론이나 논지에 있어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이다. 요컨대 언어학사에서 블룸필드식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부터 ‘촘스키식의 구조주의 언어학’—이라 해두자—에로의 변천은 과학철학사에서 논리실증주의로부터 세계관철학에로의 변천과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언어적 변환’(linguistic turn)이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언어의 문제를 철학적 논제의 한 복판에 두는 분위기로 무르익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초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차이에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애당초는 문장의 의미를 논리단소(logical simple)들로 환원한 형식언어 확립에 열중하던 분석철학이 나중에는 일상언어—즉 자연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전자는 ‘형식언어학과’ 그리고 후자는 ‘일상언어학과’라고 흔히 지칭되거나, 이러한 관심의 전환기에 있던 당시 철학자들의 눈에 자연언어의 문제

13) 세계관철학의 대두를 과학철학에 연결시켜 소개한 책으로 Suppe(1977)를 추천할 만하다.

를 철학과 심리학 등에 두루 근접시키려는 촘스키의 언어이론이 크게 부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초두에 소개된 하먼 교수의 견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촘스키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조나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학설이 탄생했다고 하여 그것이 창의력 없는 것으로 평가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모두에도 언급했듯이 촘스키 스스로도 자신의 언어이론이 과거의 철학적 사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데카르트식 언어학』(*Cartesian Linguistics*)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언어학사를 관념론적 접근방법과 경험론적 접근방법의 반복적 상호교체 과정으로 묘사하면서, 자기가 표방하는 언어학이 급진적 혁신보다는 전통적 사고와 관점에로의 복귀라고 말하고 있다. “보편문법”이니 “언어기능”이니 하는 그의 심성론적 개념들은 철학적 사변에 의해 도달되었던 과거의 유사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재정의한 것들이라 볼 수 있으니, 이런 점에서 촘스키 언어학은 이전 언어철학의 격계유전(隔世遺傳)적 소산인 셈이다.

어떤 새로운 이론이 생겨나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이전의 이론은 ‘한물간 것’이라는 식의 반응이 그 하나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치고 옳은 것이 없고, 옳은 것치고 새 것은 없다”는 식의 반응이 또 하나이다.<sup>14)</sup> 양 쪽 모두 극단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촘스키 자신이 ‘촘스키혁명’이라는 표현을 달갑게 여기고 있지 않는 이유도 미상불 여기에 있을 것이다.

14) 이 두 번째의 말은 18세기 말엽 라브와지에가 발표한 새로운 화학이론에 대해 당시의 연금술사들이 한 말이다(토마스 1984: 83f). 라브와지에는 언젠가 마라(Jean-Paul Marat)의 『불의 성질에 관한 논문』에 대해 연금술적 내용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한 적이 있다. 혁명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의 지도자이기도 바랬던 마라는 이에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사회 혁명의 불길 속에서 마침내 그 실마리를 찾는다. 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라브와지에게 ‘조국에 대한 반역죄’의 누명을 씌운 것이다. 혁명재판에서 마라는 “혁명에는 과학자 따윈 필요 없고 정의만이 필요하다”면서 그를 단두대에 세웠다. 라브와지에는 “나의 새 이론이 혁명의 불길과도 같이 세계의 지식인 사회를 휩쓸 것을 생각하니 한 없이 기쁘다”라는 말과 함께 51세를 일기로 단두대의 칼을 목에 받았다.

촘스키가 언어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간 심성의 규명에 두고 자신의 언어철학을 펼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서 이미 말한 바이지만, 종전의 언어이론이 언어 자체의 내부 체계를 밝히는 데에 몰입하고 있었다면 촘스키는 언어의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구조, 나아가서는 말하는 동물로서의 인간(homo loquens)이 지닌 ‘인간됨의 속성’을 파악하려 한다. 이렇듯 언어학의 존재이유를 ‘인간 연구’에 두기는 했지만,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그가 내세우는 이론체계가 과연 인간 내지 인간 심성의 규명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나는 매우 회의적이다. 더구나 자신이 평생 동안 행해온 연구의 결산으로서 그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최소주의’(minimalism) 이론은 그것이 과연 ‘언어이론’인가 싶을 정도로 관념적 이론 형식에 경도해 있다. 그 이론이 대상으로 하는 언어자료는 점점 더 빈약해지는 가운데 말이다. ‘인간과학’(human science)을 표방하기는 하지만, 이론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관념의 유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촘스키 언어학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초두에 인용한 샘슨의 견해, 즉 “촘스키혁명이라는 표현의 정치적 은유는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혁명은 오히려 언어학의 발전상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는 평가는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편에 들리는 촘스키 찬사 중에도 지나쳐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다. 촘스키를 “과학계의 영웅”이자 “엄청나게 숙련된 웅변가”(a tremendously skilled rhetor)요 “특출하게 인상적인 신문 문장가”(an especially impressive prose stylist)로 묘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나 코페르니쿠스 등에 견주거나(Harris 1993: 240-60), “모든 인문학 분야를 통틀어 오늘날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열 명의 저자 중 한 사람”이자 “최고의 열 사람 중 유일한 현존 인물”로 평가거나(Pinker 1994: 23), 또는 아예 성인열전식 전기(傳記)를 그에게 헌정하는 사례(Barsky 1997) 등등을 보면서, 이런 견해와 관행이 언어학계를 떠나 과연 어느 정도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의심스러워지곤 한다. 외부적 관심의 차원을 떠나, 특정 이론을 절대시하거나 그 이론의 주창자를 우상시하는 것은 이론가의 자세도 학자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기괴한 종교 숭배의 전파자들에게나 어울릴 경탄어린 존경심”(the awe-struck deference ordinarily reserved for gurus of weird religious cults)일 뿐이다.<sup>15)</sup> 사실 “현대철학에 대해 촘스키의 언어이론보다 더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는 (초두에 인용된) 하먼의 말도 과장법에 해당한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촘스키 언어이론이 철학계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당대의 철학 사조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옳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위에 되풀이하여 언급된 샘슨의 견해에 동감이 간다.<sup>16)</sup> 소위 ‘어문학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촘스키 언어학이 언어학 계열과 문학계열 사이의 간극을 굳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본다. 가령 소쉬르의 언어이론이 문학비평, 문화인류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등의 분야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꾸준히 지적 활동상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촘스키 언어이론은 ‘주류파’로서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언어학의 입지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에는 촘스키 이론의 철학적 의의가 더 이상 흥미거리일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촘스키의 문법론은 항상 철학적 색조의 입론을 통해 우리의 눈을 한정된 언어현상에 고착시켜 왔는데, 이 문법론의 강령이라 할 데카르트식 합리론은 오늘날의 지식인들 사이에 오히려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론 장치의 관념화 내지 추상화 경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촘스키 문법론에 있어서 이는 특히 새로운 이론 모형을 제시할 때마다 이전 모형과의 본질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얼마 전의 지배결속이

15) 이 표현은 Pinker(1994: 23)의 것으로, 방금 위에 인용된 (똑같은 곳에 나타나는) 그의 말과 더불어 참으로 묘하게 들린다.

16) 지금부터의 견해는 필자의 다른 글(2005)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 글의 일부를 여기에 재수록하려 한다.

론(Government-Binding Theory)만 하더라도 실은 종래의 이론들로부터 설명적 타당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상적(utopian)”일 뿐이며 따라서 보편문법을 향한 종전의 노력은 “단명(short-lived)”했다는 말로 출발했다(Chomsky 1978: 14). 그리고 또다시 이 이론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최소주의’ 모형이다.

물론 이론들은 바뀔 수 있다. 흔히들 말하듯, 이론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다. 모름지기 이론가란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회의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수정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적 혁신 작업의 결과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며, 이 점에 관해 우리는 대략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해 둘 만하다.

첫째, 목하의 언어이론이 탈바꿈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언어자료 자체는 거의 동일 범위를 맴돌아 왔다. 촘스키가 말하는 ‘관점 전환’이란 (그의 거듭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호법상의 변화’(notational variation)에 불과하다는 평을 면하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부터의 파생 현상이 있으니, 그 하나는 언어 자체보다도 그것을 설명키 위한 이론장치에 집착하는 습성이다. 특히 최근의 최소주의 접근법은 이것이 과연 언어이론인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이론의 관념화에 중점을 두고 천착하면서 또다시 이전 이론들과의 본질적 차이를 내세우는 일에 몰입하기도 한다. 그리고 점점 더 거창하게 관념화되는 이론 장치들의 포장을 벗기고 나서 보게 되는 것은 점점 더 빈약해 가는 언어자료일 뿐이다.

둘째, 언어자료를 소홀히 하는 습성은 또 한편으로 표현법에 대한 무관심을 은연중에 합리화한다. 언어학 이론을 개진함에 있어 표현상의 문제는 별무상관이라는 식의 사고방식 말이다. 그러다 보니 소위 학위논문이라는 것을 쓰면서도 논조의 세련미나 문체상의 배려는 고사하고 낱말 선택 내지 문장들 간의 연결 관계조차 안중에 없는 듯 몇 가지의 정형화되고 도식화된 어투로 전문용어를 꿰맞추는 일로 일관하는 풍조, 심지어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조잡한 표현으로 지면을 채우면서도 이에 별로 개의치 않는 풍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실로 우리의 언어학도들 중에는 아직 ‘내용이 중요하지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초급 수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표현층위가 의미층위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하다. 더구나 그 ‘내용’이라는 것이 독자를 수궁케 할 만한 호소력을 지니는 것도 못된다면 더 할 말이 없다. 촘스키 문법론이 언어학적 입론의 전반적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데에 한 몫을 크게 했다는 조이렌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셋째, 이론들의 거듭되는 변화는 부지부식간에 ‘축적된 지식’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구체적인 것들을 광범위하게 아는 것이 추상적인 공식들을—그것들이 아무리 심오하다 하더라도—많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도 있거니와, ‘광범위한 지식’은 언어학의 도리가 아니던가? 우선 몇년 몇달이 멀다하고 변모하는 이론의 행보를 계속해서 좇는 일은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허탈’케 한다. 더욱이 외국의 어떤 새로운 동향이 감지될 때마다 이를 초특급으로 입수하여 소개하거나 이에 맞추어 자기의 이론을 수정해 나아가는 것이 학자 본연의 자세라고 믿는 듯한 모습, 혹은 하나의 이론분파에 속해 있지 않으려는 것은 곧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믿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이론의 중요성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지적 세련미’, ‘학문적 원숙미’의 중요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유독 촘스키 언어학에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촘스키 이론에 비교도 안될 만큼 빈약한 언어자료에 급급하면서 언어학을 형식논리학의 아류로 만들고 있는 듯한 이론, 철학적 바탕은 전혀 없이 고등학교 영문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차 한잔의 광세’식 설명과 도표 그리기에 열중하는 이론, 외마디 말 정도의 언어형태에 장황한 관심을 쏟는 이론, 이런 것들을 논외로 했을 따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만 ‘주류파’로서의 촘스키 언어이론이 초기의 그 ‘혁명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언어학의 발전상 매우 불행한 일”이었는지 우리 나름대로 음미해 보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위에 지적된 것들 중 특히 첫째와 둘째 사항을 합쳐 보건대, 결국 목하 문법론은 ‘언어 그 자체에는 별 관심도 소양도 없이 언어학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터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촘스키 언어학에 심취한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견해에도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그[=촘스키]의 변화무쌍함, 즉 급격하게 자신의 이론을 바꿔 가면서 이를 자기 이론의 자연스런 확대인 듯이 제시하는 능력을 칭송하는 가운데 그에게 탄복한다. [...] 촘스키의 이같은 행위로 언어학은 큰 해를 입었다. 언어학이 오늘날 사회학적으로 매우 허약한(sociologically very unhealthy)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주로 촘스키의 활동에 기인한다. [...] 언어학적 입론뿐 아니라 생성문법에 입각한 언어 분석이나 기술법도 그 전반적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제는 바야흐로 언어학이라는 분야 전체가 지적으로 하찮게(intellectually irrelevant) 되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Seuren 1998: 526)

소쉬르가 역사·비교언어학 연구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말년에 접어들어 통시적 접근법으로부터 공시적 접근법으로 선회하면서 구조주의의 장을 열었듯이, 촘스키는 블룸필드식 구조주의 언어학에 입문하여 몰두하다가 일찌감치 그 한계를 간파하고 변형생성문법론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말이지만, 사실 블룸필드도 열렬한 심성주의자(mentalist)로 출발하여 결국에는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주의자(behaviorist)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즉 ‘혁명’의 정의에 따라—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이들 모두 자신이 입문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우 진지하게 몰두한 바 있는 분야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는 점이다. 기존 이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생기면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인간 학문사의 일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든 그것에 어느 정도 심취하지 않고서는 깊이있는 이해를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심취하고 있는 목하 이론에 대한 뜻있는 비판의 목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 깨우쳐 보는 역량도 필요하다. 이론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인용문헌

- 도스, 프랑수와(François Dosse), 『구조주의의 역사』(Histoire du structuralisme), 이봉지, 송기정 외 옮김, 서울: 동문선, 1998.
- 문경환, 「주류와 언어이론의 단면도」, 『인문언어』 7, 2005.
- 토마스, 헨리 리 & 데이너 리 토마스(Henry Lee Thomas & Dana Lee Thomas), 『위대한 과학자들』(Living Biographies of Great Scientists), 맹주선 옮김, 서울: 종로서적, 1984.
- Barsky, Robert F. *Noam Chomsky. A Life of Dissent*. Cambridge, Mass.: MIT Press, 1997.
- Bierwisch, Manfred. *Modern Linguistics: Its Development, Methods, And Problems*. The Hague: Mouton, 1971.
- Botha, Rudolf. *Challenging Chomsky: The Generative Garden*. New York: Basil Blackwell, 1989.
- Chomsky, Noam. *Cartesian Linguistics*. New York: Harper & Row, 1966.
- Chomsky, Noam. “A Theory of Core Grammar.” *GLOW* 1, 1978.
- Chomsky, Noam. *On the Generative Enterprise: a Discussion with Riny Huybregts and Henk van Riemsdijk*. Dordrecht: Foris, 1982.
- Chomsky, Noam.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1986.
- Hagège, Claude. *La Grammaire Générative: Réflexions Critiques*. Paris: PressesUniversitaires de France, 1976.
- Harman, Gilbert. (Ed.) *On Noam Chomsky: Critical Essays*, New York: Anchor Books, 1974.
- Harris, Randy A. *The Linguistic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Hymes, Dell & John Fought. *American Struralism*. The Hague: Mouton, 1981.
- Keat, Russell & John Urry. *Social Theory as Science*. London: Routledge & Paul, 1975.
- Koerner, Konrad. “Towards a Historiography of Linguistics: 19th and 20th century paradigms.” In Herman Parret, ed., *History of Linguistic Thought and Contemporary Linguistics*.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6.
- Koerner, Konrad. “The ‘Chomskyan Revolution’ and its Historiography: A Few Critical Remarks.” *Language and Communication* 3, 1983.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Kuhn, Thomas S. *The Essential T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Lakatos, Imre & Alan Musgrave.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Lakoff, George. "On Generative Semantics." In Danny Steinberg & Leon Jakobovits, eds., *Semantics: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Laudan, Larry. *Progress and its Problem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Newmeyer, Frederick. "Has There Been a Chomskyan Revolution in Linguistics?" *Language* 62, 1986.
- Percival, W. Keith. "The Applicability of Kuhn's Paradigms to the History of Linguistics." *Language* 52, 1976.
- Piaget, Jean. *Structuralism*, (Trans. Chaninah Maschler.) New York: Basic Books, 1970.
- Pinker, Steven. *The Language Instinct: How the Mind Creates Language*. New York: Morrow & Co., 1994.
- Popper, Karl.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Harper & Row, 1968.
- Popper, Karl.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 Robinson, Ian. *The New Grammarian's Funeral: A Critic of Noam Chomsky's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Sampson, Geoffrey. *Schools of Linguist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0.
- Searle, John. "Chomsky's Revolution in Linguistics." In Gilbert Harman, ed., *On Noam Chomsky: Critical Essays*, 1974.
- Seuren, Pieter A. M. *Western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1998
- Suppe, Frederick.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7.
- Weydt, Harold. *Noam Chomskys Werk: Kritik, Kommentar, Bibliographie*. Tübingen: Narr, 1976.

[Abstract]

## The Real Nature of “Chomskyan Revolution”

Kyung-hwan Moon  
(Yonsei University)

Quite a few historiographers of language science have measured the applicability of the term ‘revolution’ toward the line of work initiated by Chomsky, with the conclusion to the positive or negative effect as the case may be. This paper starts out with a brief review of this issue, with an interim conclusion that, while Chomskyan linguistics may be regarded as revolutionary in certain aspects, terms like ‘revolution’ and ‘paradigm’ are hardly applicable here in the way they were originally intended by Thomas Kuhn. It can be said, nontechnically, that the model of theory under discussion is at once ‘revolutionary’ and ‘evolutionary’—in the sense that revolutions in linguistics have not resulted in abrupt loss of continuity with past ‘paradigms’, if there were any such. Chomsky’s theory of language plays the same role of consolidation and refinement of structuralism that, say, the neogrammarians played in their day. It has continued some fundamental traits of its predecessor, recovered others, and unwittingly rediscovered still others. But this is not the main thrust of the present paper. For, even if Chomskyan theory were to be looked upon as straightforwardly ‘revolutionary’, that revolution has not been a felicitous one. Some critic (Pieter A. M. Seuren, to be specific) goes as far as to say that “largely as a result of Chomsky’s actions, linguistics is now sociologically in a very unhealthy state ... to the point even of threatening to make that whole school of linguistics intellectually irrelevant.” Besides, under the present state of language science that strikes one as typical of what Kuhn has characterized as “pre-paradigmatic” insecurity and disharmony, an unhealthy situation might take place if we were to think of the theoretical disagreements as conflicts between

‘incommensurable’ viewpoints—between ‘rival paradigms’ as it were—thereby avoiding or evading rational discussion. Another danger concerns the bandwagon effect, with linguists prematurely boarding each novel theory seemingly destined for popularity, for fear of being left clinging to an outdated ‘paradigm.’ Here lies another reason why the notion of ‘revolution’, Kuhnian or not, might as well be put aside, in the historiography of linguistics at the least.

keywords: Kuhnian revolution, Chomskyan revolution, paradigm. structuralism, American structuralism, the status quo of Chomskyan linguistics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